

세계와 시민 GCP 프로젝트

함께 보는 세상, 함께 찾는 화면

화면 해설 영상에 관한 자료집



목차

1장 시각장애인

2장 시각장애와 미디어

3장 화면 해설에 대하여

4장 화면해설 방송 현황

5장 해외 화면 해설 방송 현황

6장 향후 발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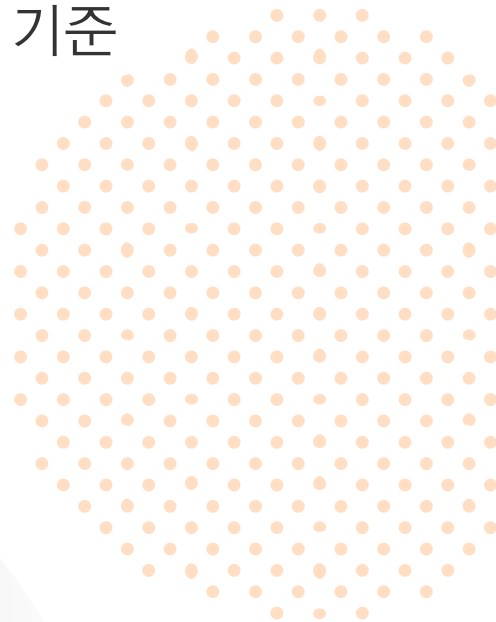
7장 인터뷰

8장 자료집 제작 후기

함께 보는 세상, 함께 찾는 화면

1장 시각장애인

- 1.1 시각장애인의 정의
- 1.2 시각 장애의 등급 판정 기준



1. 시각장애인

1.1 시각장애인의 정의

시각장애인을 사전에 찾아보면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요인으로 시각에 이상이 생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아주 약한 시력만 남아 있어서 앞을 보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요. 예로부터 시각장애인은 '소경', '맹인', '장님', '판수' 등으로 불리웠는데, 국어사전을 확인해 보면 소경, 장님, 판수의 뜻은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요인으로 시각에 이상이 생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 되어 있으며, 장님은 '시각장애인(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요인으로 시각에 이상이 생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달리 이르는 말'이라 뜻풀이가 되어 있어요.

즉, 시각장애인은 단순히 시각에 이상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 외에도 그런 이들을 낮잡아 보는 차별적 시각이 존재하는 용어로 호칭하였으나 지난 1981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될 때 언어순화 차원에서 '시각장애인'이라는 용어로 불리게 되었어요.

1.2 시각장애의 등급 판정 기준

같은 시각장애인이라 해도 시각 능력의 손상 정도에 따라 경중의 차이가 있는데,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나눌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시각장애는 1급에서 6급까지로 구분한다고 해요.

| | 장애등급판정기준 |
|-------|---|
| 1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추정된 것을 말하며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함.) |
| 2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 3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
| 3급 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 4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
| 4급 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 5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 5급 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 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 참고자료**
1. 장애판정 등급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74호, 2013.11.27. 일부 개정]
 2. 홍미정. "화면해설방송이 시각장애인의 정보습득과 이해 및 만족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2015. 서울

함께 보는 세상, 함께 찾는 화면

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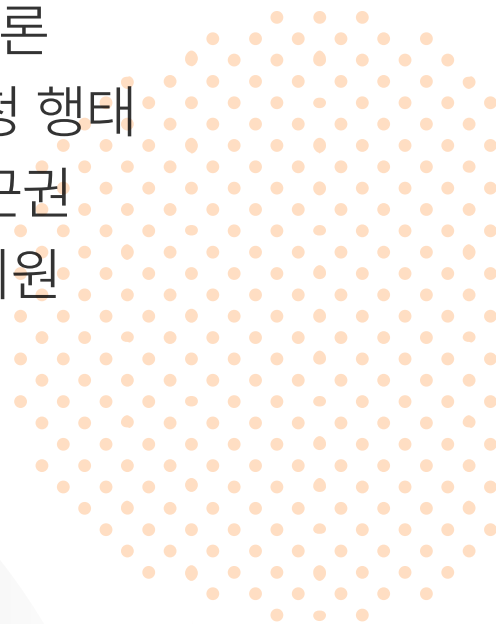
시각장애인과 미디어

2.1 장애인의 정보격차 이론

2.2 시각장애인의 미디어 시청 행태

2.3 시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2.4 법적 지원과 정책적 지원



+ 2. 시각장애인과 미디어

2.1 장애인의 정보격차이론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티치너 등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다른 사회계층에 있는 구성원들 간에 지식을 차별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가정했는데 이것은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 보여요. 즉 추가적인 정보의 유입에 따라 지식이 늘어날수록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지식은 더 많이 증가된다는 것이 이 가설의 가정이에요.

그의 가정처럼, 계층의 격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식격차는 더욱 커집니다. 정보격차 이론의 최근 연구 경향은 뉴미디어의 확산에 따라 정보격차가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접근과 정보 활용 능력이 부족한 집단은 오히려 그 차이가 더욱 확대돼요.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과 정보를 적게 가진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회적 구분을 만들어 내며, 이것은 다시 사회적 차별과 소외로 이어져요. 정보가 부족할 뿐 아니라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삶의 영역에서 불이익과 불편을 겪어요.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정보 격차의 한 갈래라 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격차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정보격차에 대한 많은 논의가 디지털 정보격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장애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상위 계층은 하위 계층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계층 간 정보 격차가 벌어지게 돼요.

사회경제적으로 하위계층에 속하는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정보를 원활하게 습득하기 어려우므로 비장애인과 정보격차가 생겨요.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디지털 정보화 기기를 이용함에 있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는 비단 디지털 기기 이용만의 문제는 아니랍니다. 설사 디지털 기기 이용이 가능하다 해도 디지털 콘텐츠 자체가 시각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무시한 채 시각적 정보로만 제공된다면 시각장애인은 그 정보를 습득하기 어렵게 되고 이는 비장애인과 정보격차의 원인이 돼요. 이와 같은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움직임과 더불어 시각을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해요.

참고자료 홍미정. "화면해설방송이 시각장애인의 정보습득과 이해 및 만족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2015.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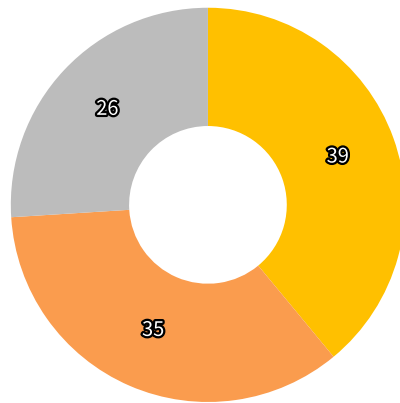
+ 2. 시각장애인과 미디어

2.2 시각장애인의 미디어 시청 행태

지난 2012년 12월 아날로그 TV방송의 종료와 함께 디지털 방송의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방송이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전환되면서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질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에서 소외된 이들이 있는데 바로 장애인이에요. 일방적 방송에서 쌍방의 대화식 방송으로 변화하면서 프로그램 내용을 자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의 경우, 예전에 비해 자막의 양이 늘어나고 교양이나 오락 프로그램의 경우도 표정이나 생각 등을 자막으로 처리하여 시각 장애인들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지난 1999년 공중파 방송, 극장 등을 시작으로 현재 OTT 프로그램까지 화면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술적 미비 탓에 시각장애인에게 달지 못하고 있어요. 2024년 10월 넷플릭스에서 흑백요리사에 대한 동영상 화면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력이 있으나, 아직 일부콘텐츠에만 적용 중이에요. 경희대학교 공식 유튜브 등 교내 다양한 채널에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요.

일별 화면해설방송 시청시간을 조사한 결과, 100명(100%)기준으로 '1시간미만' 시청한다고 응답한 인원이 39명(3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시간' 35명(35%)으로 유사하게 나타났어요. '1시간미만'으로 시청한다고 응답한 39명을 대상으로 화면해설방송 시청시간이 적은 이유를 물어봤을 때 화면해설방송시간과 TV시청시간의 불일치, 원하는 프로그램의 화면해설 제작 콘텐츠 부족, 다양한 장르의 화면해설 방송 부족등으로 대다수 응답하였어요.



■ 1시간 미만 ■ 1-2 시간 ■ 2시간 초과

<그림> 화면해설방송 시청시간

참고자료 장인선, 안충현, 서정일, 이은하, 강완식. (2017). 시각장애인 미디어접근권 향상을 위한 해설오디오 수용도 조사 및 분석. 방송공학회논문지, 22(2), 214-233.

+ 2. 시각장애인과 미디어

2.3 시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시 청각 장애인의 방송매체로의 접근을 위해서는 (법)제도와 정책적 측면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정보불균형의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 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과 장애인방송의 품질 개선을 위해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해당 가이드라인은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지침 다시 말해, 사업자에 대한 권장사항일 뿐이어서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는 아직도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렇다면 방송접근권이란 무엇일까요? 방송접근권은 '방송프로그램에 누구나 다 평등하게 접근하여 자유롭고 불편함 없이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시 청각 장애인을 위한 방송접근권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시 청각 장애라는 장애의 유형과 방송프로그램(방송매체)이라는 정보매체의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구체화된 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의 성격을 모두 가진 복합적인 기본권으로 해석이 돼요.

시 청각 장애인이 다양하게 방송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장애인방송이 다양하게 제작 편성되는 것이 필요해요. 장애인방송의 제작 편성은 방송사에게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현행법상 정부는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 등에 따라 별도의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장애인방송의 편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필수지정사업자와 고시의무사업자를 구별하고, 이들 사이의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에 차등을 두어 그 부담을 분산시키고 있어요. 다양한 장애인방송의 편성 제작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방송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해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지상파와 일부 유료방송 채널은 연간 방송 시간의 일정 비율을 화면해설 방송으로 편성하는데, (2023년 기준) 지상파 방송사의 화면해설 방송 의무 편성 비율은 7%라고 해요. 현재 화면해설 방송 비율이 낮기 때문에 콘텐츠 확대와 기술적 개선이 필요해요. 화면해설 영상에 대한 법적 정책적 지원은 다음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
- 참고자료**
1. 김소연. (2020).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에 대한 헌법적 고찰. 공법연구, 48(3), 255-286, 10.38176/PublicLaw.2020.02.48.3.255
 2. 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 방송접근성 가이드라인

+ 2. 시각장애인과 미디어

+ 2.4 법적 지원과 정책적 지원

2.4.1 법적 근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서의 차별금지)

국가와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해요.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등 정보 접근을 위한 편의 제공이 명시되어 있어요.

- 방송법

제69조(방송의 공적 책임)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가 방송을 통해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해요

제85조(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

방송사업자는 청각, 언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 한국 수어, 화면해설방송을 편성해야 해요

-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 및 문화 여가 생활 지원)

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문화생활 보장을 위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해요.

2.4.2 정책적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 시청자를 위한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어방송 비율을 정기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의무화했어요. 2023년 기준, 자막방송 95%, 화면해설방송 7%, 수어방송 5% 제공 기준이 적용되었어요.

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장애인 방송 접근권 확대를 위해 제작비를 지원하고,

기술 개발 및 모니터링 사업을 운영했어요.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을 위한 방송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가 인권위원회가 권고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참고자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제6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제8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제2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 방송접근성 가이드라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장애인 방송지원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함께 보는 세상, 함께 찾는 화면

3장

화면해설에 대하여

3.1 화면해설 개념

3.2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영상

3.3 우리나라 화면해설 영상



+ 3. 화면 해설

3.1 화면해설의 개념

화면해설은 TV, 영화, 연극 등 다양한 시각적 매체에서 시각장애인이 알 수 없는 등장인물의 표정, 행동, 의상, 배경을 포함하여 장면의 상황변화 요소들을 글로 번역하고 음성으로 설명하여,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각매체에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예요.

3.2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영상

화면해설방송을 제작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화면해설방송으로 편성할 프로그램을 먼저 선정하고,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화면해설작가가 내레이션이나 대사 없이 시각적 정보만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한 화면해설 원고를 써요. 화면해설 원고에는 각 등장인물의 의상, 표정, 행동, 사건이 벌어지는 시공간적 배경 그리고 자막 등의 정보가 들어가요.

최근에는 외국어의 번역이나 정보전달의 목적 외에도, 등장인물의 표정이나 생각을 표현함에 있어 오락적 기능으로 자막을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해설방송에서는 자막의 내용도 포함해요. 원고가 완성되면 성우가 녹음을 하고, 대사나 내레이션 혹은 중요한 음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오디오 트랙에 더빙을 입력해요. 이 때 화면해설 성우는 원래의 성우와 성별을 달리함으로써 기존 내레이션과의 혼동을 막고, 시각장애인이 프로그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3.3 우리나라 화면해설영상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1년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이 시작됐어요. 당시의 방송은 장애인의 날에 KBS와 MBC에서 시험방송으로 실시한 것이었어요. 이후 MBC는 시험적으로 화면해설방송을 실시했던 '전원일기'에 이어 금요단막극 '우리집'의 재방송을 화면해설방송으로 제공했고, 2003년 1월부터 '6mm 세상탐험'과 '여기보고 세계보고'의 재방송을 화면해설방송으로 제공했어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미디어접근센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화면해설방송이 시작된 시점을 2005년 3월로 보고 있어요.

당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TV 평일 낮방송'연장 지침이 발표된 시기로, 낮 시간에 재방송되는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그 중 몇몇을 화면해설방송으로 정규편성하기에 이르렀어요. 이렇게 첫 방송의 물꼬는 텃으나 이후 4~5년간 각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화면해설방송은 지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답니다.

+ 3. 화면 해설

| 방송사명 | 주간 총방송시간 | 주간자막방송 | | 주간수화방송 | | 주간화면해설방송 | | |
|------|-------------|--------|-------|--------|-----|----------|-----|------------|
| | | 시간 | 비율 | 시간 | 비율 | 시간 | 비율 | |
| KBS | 1TV | 7,330 | 2,750 | 37.5 | 35 | 0.5 | 70 | 1.0 |
| | 2TV | 7,360 | 1,745 | 23.7 | 100 | 1.4 | 290 | 3.9 |
| | 계 | 14,690 | 4,495 | 30.6 | 135 | 0.9 | 360 | 2.5 |
| MBC | | 7,195 | 2,360 | 32.8 | 40 | 0.6 | 295 | 4.1 |
| SBS | | 7,305 | 2,410 | 33.0 | 20 | 0.3 | 326 | 4.5 |
| EBS | | 7,050 | 1,090 | 15.5 | 90 | 1.3 | - | - |

지상파 방송 장애인 방송 서비스 현황 (2006)

그러던 중에 2011년에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가 발표되면서 중앙 지상파 방송사는 2014년, 지역 지상파는 2015년,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사업(SO), 보도·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PP), 일반 PP, IPTV채널사업자(CP)는 각각 2016년까지 목표기간 동안에 지상파와 보도·종편 PP는 자막 100%, 화면해설 10%, 수화통역 5%를 달성해야 하고, 위성방송과 SO도 자막 70%, 화면해설 7%, 수화통역 4%를 달성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어요. 또한 일반 PP와 IPTVCP는 자막 70%, 화면해설 5%, 수화통역 3% 이상을 제공해야 해요.

이와 같은 제도적 지원정책으로 인해 각사의 화면해설방송 의무편성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양적인 평가가 가능해졌어요. 그러나 방송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편성시간만 제출하면 되므로 질적인 측면에 대해 평가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 점이 있답니다. 이는 지상파 방송 4사의 화면해설방송 방영시간 대가 주로 낮시간대와 심야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시각장애인들 중 상당수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의 생활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저녁시간대 등 방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시청시간대에도 시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참고자료 1. 방송위원회 시청자 지원팀 방송 서비스 현황 자료

함께 보는 세상, 함께 찾는 화면

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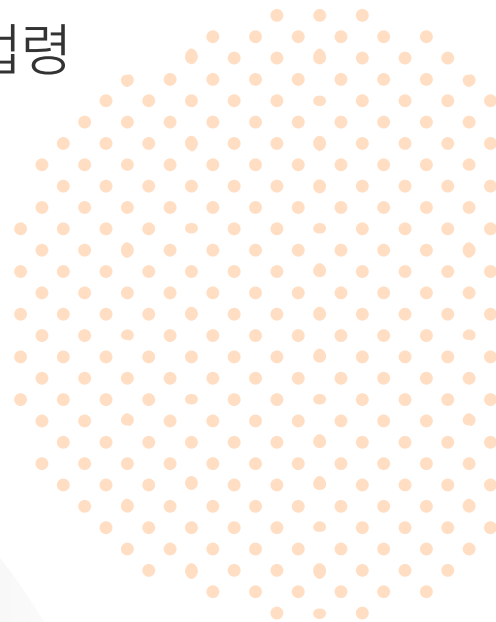
화면해설 방송 현황

4.1 화면해설 관련법령

4.2 비율

4.3 제공방식

4.4 한계



4. 화면해설 방송 현황

4.1 관련법령

| 주관 부처 | 법률명 | 관련 조항 |
|----------------------|-------------------------------------|---------------------|
|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 제22조 |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21조제4항 |
| 문화체육관광부 | 콘텐츠산업법 | 제3조 제2항 제38조 제2항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8조의 4 제49조의 2 |
| | 저작권법* | 제33조, 제33조의 2 |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법 | 제69조 제8항 |
| | 방송법 시행령 | 제52조 제2항 |
|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능정보화기본법 | 제46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 제22조의 10 |

*저작권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 조항은 2024년부터 시행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영상콘텐츠 지원 관련 법률 개요(김숙·임희수(2023,18))

4.2 비율

지상파, 지역지상파, 종합편성방송채널·보도전문방송채널은 전체방송시간 중 화면해설방송 10% 이상을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 사업자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

| 구분 | 편성의무 사업자(108개사) | |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 | |
|-------------------------|-----------------|------|---------------|----------------------|------|
| | | | 폐쇄자막 | 화면해설 | 한국수어 |
| 필수지정 사업자* (55개사) | 지상파 | 4개사 | 100 | 10 (재방송 25%이하) | 7 |
| | 지역지상파 | 44개사 | 100 | 10 | 7 |
| | 보도·중편PP | 6개사 | 100 | 10 (재방송 25%이하) | 7 |
| | 위성방송 | 1개사 | 70 | 7 | 4 |
| 고시의무 사업자** (53개사)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43개사 | 70 | 7 | 4 |
| | 일반PP | 10개사 | 70 | 5 | 3 |

* 필수지정 사업자 : 장애인방송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방송법 시행령 제52조제2조)

** 고시의무 사업자 : 유료방송사업자 중 매출액, 시청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방통위가 고시하는 사업자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5조)

4. 화면해설 방송 현황

그동안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미국 OTT 플랫폼에서는 화면해설방송을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었지만, 국내 OTT 플랫폼에서 화면해설방송이 제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2023년 6월~2024년 2월까지 9개월 간 화면해설 방송을 제작했어요. 제작 완료된 화면해설방송은 국내 OTT 플랫폼의 51개 프로그램, 총 623개 에피소드이며 드라마 40편, 예능 6편, 다큐 4편, 영화 1편이 제작됐어요.

4.3 제공방식

비실시간 장애인방송 서비스 이용 플랫폼

| 이용플랫폼 | 화면해설방송 | | | |
|------------------------------------|--------|------|------|------|
| | 1 순위 | | 2 순위 | |
| | 명 | % | 명 | % |
| 방송사 홈페이지/웹 (web) | 4 | 6.1 | 10 | 15.2 |
| IPTV (KT 올레 tv, LGU+, SK Btv) | 8 | 12.1 | 10 | 15.2 |
| 케이블TV (달라이브, 티브로드, CJ헬로비전 등) | 3 | 4.5 | 5 | 7.6 |
|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 2 | 3.0 | 0 | 0.0 |
| 인터넷제공방송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왓차, 유튜브 등) | 9 | 13.6 | 21 | 31.8 |
| 시각장애인용 미디어접근 사이트 (KBUMac) | 40 | 60.6 | 14 | 21.2 |
| 무응답 | 0 | 0.0 | 6 | 9.1 |
| 합계 | 66 | 100 | 60 | 100 |

비실시간 장애인방송 서비스 이용 기기

| 이용 기기 | 화면해설방송 | | | |
|--------|--------|------|------|------|
| | 1 순위 | | 2 순위 | |
| | 명 | % | 명 | % |
| TV | 13 | 19.7 | 12 | 18.2 |
| PC/노트북 | 11 | 16.7 | 35 | 53.0 |
| 태블릿 PC | 0 | 0.0 | 3 | 4.5 |
| 스마트폰 | 42 | 63.6 | 15 | 22.7 |
| 기타 | 0 | 0.0 | 0 | 0.0 |
| 무응답 | 0 | 0.0 | 1 | 1.5 |
| 합계 | 66 | 100 | 65 | 100 |

이영화·박성순·김정호·진승현·김은영(2021)

4. 화면해설 방송 현황

위의 표는 시각장애인 100명, 청각장애인 100명을 대상으로 폐쇄자막방송, 한국수어방송, 화면해설 방송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예요. 그 중 화면해설방송에 대한 부분만 발췌한것이예요. 조사결과 비실시간 이용 플랫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용 미디어접근 사이트였고 이용기기는 압도적인 비율로 스마트폰이었어요.

4.4 한계

- 제공 비율이 낮아 모든 프로그램에 화면해설이 포함되지 않아 콘텐츠가 제한돼요.
- 제공 콘텐츠 수가 부족하며 특정 장르에 치중되어 있어요.
- 일부 방송 기기 및 플랫폼에서 화면해설 기능을 미지원해요.
- 인식 부족으로 시청자와 방송사 모두 화면해설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아요.
- 장애인들의 시청권을 보장하는 한국수어·폐쇄형자막·화면해설등을 이용한 장애인방송의 의무는 TV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어 OTT 서비스는 자체제작 프로그램이나 수급한 영화 등의 콘텐츠에 대해 이를 지킬 의무가 없어요.

2023년 공개된 콘텐츠 조사 결과를 보면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는 전부 화면해설을 지원했어요. 하지만 동시 방영 드라마에선 넷플릭스는 25작품중 11작품만을 디즈니플러스는 11작품 중 1작품만이 화면해설이 지원되었어요. 국내 플랫폼의 경우 상황은 더욱 안 좋아요. 쿠팡플레이의 경우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화면해설을 지원하는 작품이 없었고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의 경우 20작품 중 6작품만이 지원 되었어요.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의 경우 작품 선택시 화면해설을 지원하고 있으면 아이콘으로 표기하여 알려줘요. 하지만 쿠팡플레이는 그러한 서비스가 전혀 제공되고 있지 않아 콘텐츠에 접속하여 설정을 확인해야했어요. 또한 티빙의 경우 화면해설 콘텐츠를 별도로 제공하기에 화면해설이라고 검색할 시에 떠요. 하지만 검색 결과 하단엔 화면해설이 제공되지 않는 콘텐츠도 함께 노출되기도 해요. 검색시 20작품만이 화면해설 콘텐츠로 뜨며 모두 드라마예요.

또한 영화의 경우 <파묘>를 배리어프리로 상영하는 상영관은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전체 상영관의 1% 수준인 23개에 불과하였으며 서울의 경우 단 한 곳에서만 상영했어요. 이렇듯 배리어프리 콘텐츠를 오프라인에서 상영하는 횟수가 적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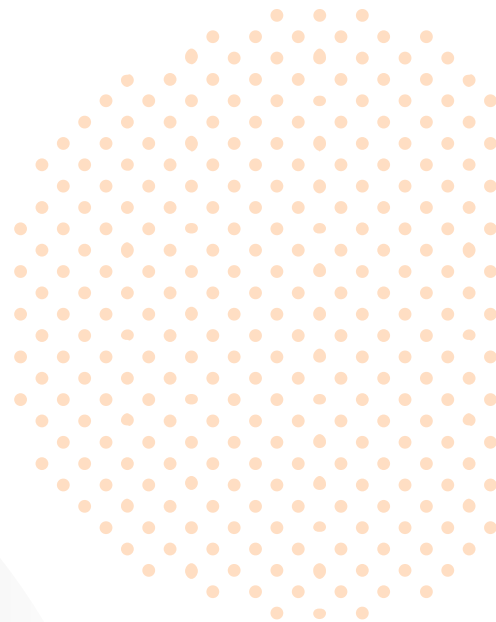
함께 보는 세상, 함께 찾는 화면

5장

해외 화면해설 방송 현황

5.1 미국

5.2 영국



+ 5. 해외 화면해설 방송 현황

+ 미국

(1) 관련 법령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 (21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CVAA)은 시청각장애인이 콘텐츠 시청을 한층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C)는 폐쇄자막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 해요.

(2)비율

미국의 방송사 대신 영화에 대한 자료를 보자면 영화관 자막 및 화면 해설 서비스 미국 장애인법의 도입 이후 26년이 지난 2017년 1월17일 제3장의 새로운 규정이 발효되었어요. 자막 및 화면 해설 서비스는 관람객이 요청하면 바로 그 영화관 좌석에 자막이 제공되는 방식이에요. 요청한 관람객 당사자만이 볼 수 있으며 무선 헤드셋은 시력에 문제가 있는 고객이 영화 장면의 대사 설명을 따라갈 수 있게 해줘요. 법무부는 이 규제 준수로 영화관에 자막설치 하드웨어, 오디오 설명 하드웨어 및 장치 구입비, 설치비, 교체비, 교육 및 유지 관리비 등 발생 비용을 상세 분석했어요. 2016년 법무부가 발표한 예상 비용은 향후 15년 간 매년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했어요. 반면에 극장들이 부담해야 하는 자막이나 화면 해설 장비 구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없어요. 상업용 영화의 경우 폐쇄형 상영방식에 필요한 청각 장애인용 자막이나 화면 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작사나 배급사 부담이에요.

극장 예약 사이트에서 영화마다 상영시간 표시와 더불어 자막(Close Captions, CC), 화면설명(Descriptive Video Service) 여부를 표시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스마트폰 앱을 깔아서 자막을 보거나 화면 해설을 듣는 방식도 도입되었는데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용 앱 Subtitles Viewer가 대표적이에요. 개봉작과 영화들의 자막을 20개 국어로 제공하는데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자막 서비스를 영화관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자막이나 화면설명을 제공하는 극장 검색 앱 '캡션피시'(Captionfish)를 사용하면 인근 극장의 자막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어요.

+ 5. 해외 화면해설 방송 현황

영국

1) 관련 법령

커뮤니케이션법 2003(Communications Act 2003)을 통해 일정 비율 이상의 프로그램에 장애인인을 위한 기능을 추가할 것을 규정했어요.

2017년에는 ‘디지털 경제법 2017 (Digital Economy Act 2017)’이 제정되어 미디어 플랫폼 전반에서 장애인 미디어 접근성 개선이 이루어졌어요. 이로 인해 VOD 업체들은 매년 방송통신 통합규제기구(The office of Communications, 이하 Ofcom)에 장애인 미디어 접근성 개선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루었는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Ofcom은 2017년 Ofcom code를 수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화면해설 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을 상세히 하여 화면해설 서비스의 품질을 균일화했어요.

| 항목 | 규정 |
|-----------------|---|
| 제작 가이드라인 | 준수 의무 |
| 편성 의무 | 편성 의무비율(10%) 제시 |
| 공영방송 | 공영방송 자체 중간 공약 편성 |
| 편성시간대/프로그램선정 | 주시청시간대/ 시청점유율 상위 프로그램 편성 권고/ 중복반복편성 제한/ 편성 등에 있어, 장애인단체와의 협의 및 자문 과정 중시 |
| 지속성 및 품질 모니터링 | 정기적인 모니터링 |
| 자문과 피드백 | 장애인 이용자의 불만사항 접수 및 장애인단체 자문 의무사항 |
| 국가적 긴급상황제공 | 의무제공 사항 |
| 기술적 지원 (성실의무) | 최대 다수 시청자가 TV접근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TV서비스사업자가 노력 |
| 공개 (유형표시의무) | 프로그램 시작 시점에 고지 |
| 편성표 제공 (유형표시의무) | 전자프로그램가이드(EPG)/ 웹사이트 제공 |
| 예외인정기준 | a) 장애인 시청지원으로 얻는 이익정도 b) 프로그램 시청자의 규모: 시청점유율이 지난 12개월 간 0.05% 이하일 때 c) 지원 수혜자의 규모와 그 이익 정도 d) 외국 시청자 수 e) 기술적 어려움: 화면해설 필요성이 적은 뉴스, 음악 프로그램 등 (방송사업자는 장애인방송 기술에 숙달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12월 이내에 그들이 제공하는 교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셋톱박스에서 지원하지 않는 중국어나 힌두어 등 자막/다중 언어 방송 f) 지원제공 비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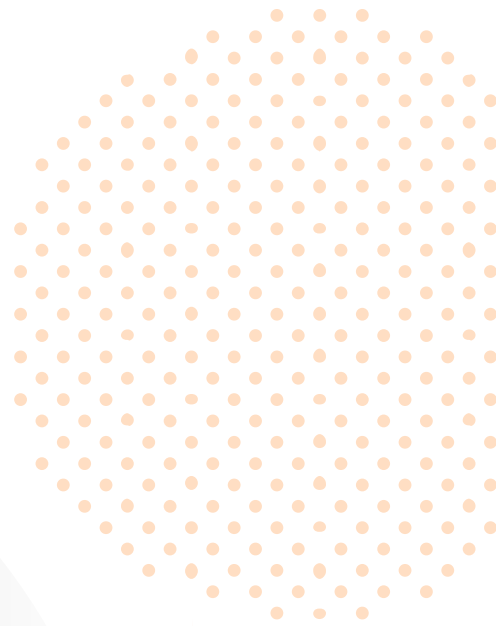
2)비율

방송사 전 채널이 배리어프리 자막 서비스 목표 수치를 넘겼으며, 프로그램의 98% 이상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널이 전년도 동 기간 수치인 40개에서 53개로 증가했어요. 화면해설 서비스는 예외 채널 5개를 제외하고 모든 채널이 목표 수치를 초과 달성했어요. 온라인동영상콘텐츠(Open Data Platform and Services, ODPS)는 2023년 기준 배리어프리 자막 서비스 83.3%, 화면해설 서비스 25.8%, 수어 서비스 1.9%를 달성했다고 밝혔어요.

함께 보는 세상, 함께 찾는 화면

6장

향후 발전 방향



+ 6. 향후 발전 방향

1) 기술 발전을 통한 서비스 개선

AI 음성 기술을 활용한다면 화면해설 제작 비용 절감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AI 음성 기술을 활용해 더 빠르고 효율적인 화면해설 제작할 수있으며 실시간 방송에도 AI를 적용해 즉시 화면해설 제공할 수 있어요. 실시간 화면해설 제공을 위한 음성 인식 및 생성 기술 발전에 힘써야 해요. AI 학습을 통해 감정, 톤, 맥락에 맞는 자연스러운 해설도 제공할 수 있어요.

2) 인식 개선(인식 확산과 문화 조성)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화면해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관심을 갖도록 캠페인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해요. 대중 캠페인을 통해 화면해설 방송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심을 유도해야 해요. 또한 학교, 직장, 지역사회에서 시각장애 인식 개선 교육 제공해야 해요.

3) 정책 및 제도 개선

법적으로 화면해설 의무화 비율 상향 조정과 함께 모니터링 및 규제 강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 보장해야 해요. 주요 프로그램뿐 아니라 모든 장르(예능, 드라마, 스포츠 등)로 확대해야 하며, 이를 지켰을 때 지원금 및 인센티브 제공, 화면해설 제작비 지원을 위한 정부 보조금 마련, 콘텐츠 제작사에 화면해설 도입 시 세제 혜택 또는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지원정책 또한 늘려야 해요.

4) 국제 협력 및 사례 공유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하고 국제 협력 및 기술 교류를 통해 화면해설 제작 역량을 강화해야 해요.

5) 이용자 접근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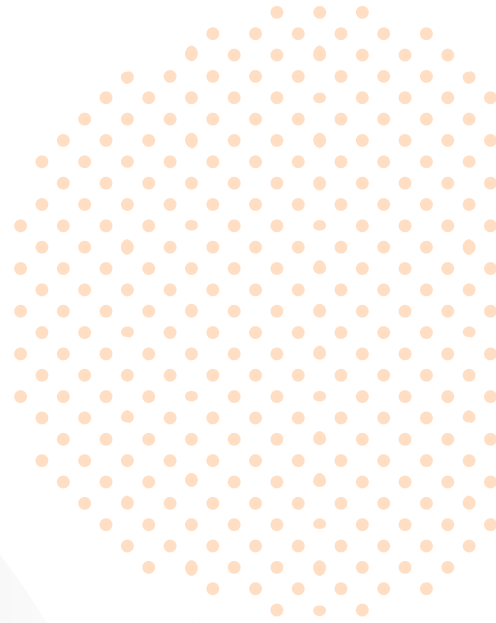
OTT 서비스에서 화면해설 옵션 기본 제공하고 프로그램 검색 시 화면해설 제공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해야 해요. 또한 소규모 제작사도 쉽게 화면해설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 및 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참고자료

- 1.이지연(2024), 「배리어프리 콘텐츠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OTT 서비스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2.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2020), 「해외 주요국의 장애인 VOD 접근성 확보 현황」, 트렌드리포트, 2020-29호, 45쪽.
- 3.한국방송학회(2021) 「OTT시대,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에 관한 연구 : 시청각장애인의 비실시간 방송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을중심으로」, 2021년 봄호(통권 제 114호),38-83쪽
- 4."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사업자, 지난해 화면해설-수어방송 모두 편성 (<https://www.news1.kr/it-science/cc-newmedia/5356588>)
- 5.하은선(2022),미국 영화관 장애인 관람석 설치기준 및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법제화 현황

함께 보는 세상, 함께 찾는 화면

7장 인터뷰





오재형

Jae Hyeong Oh
영화감독, 피아노연주가

필모그래피

소영의 노력 (2024)
수카바타: 극락축구단 애니메이션 (2024)
피아노 프리즘 (2023)
양림동 소녀 (2022)
보이지 않는 도시들 (2021)
모스크바 닭도리탕 (2019)
보이지 않는 도시 (2018)
봄날 (2018)
블라인드 필름 (2016)
덩어리 (2016)
강정 오이군 (2015)
쇼팽이미지에튀드 (2008)

주요 성과

2024년 제16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예술상

Q1 감독님!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고 있고요.

다큐멘터리 영화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든 실험 영화든 전방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는 그림을 그린다던가 아니면 피아노를 연주한다거나 그런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만드는 거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Q2 언제 어떻게 화면 해설 영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장애학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많았어요. 여성을 공부하는 게 여성학 페미니즘이듯이, "장애를 공부하는 게 단순히 복지의 관점뿐만 아니라 장애의 시선으로 모든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자"고 말하는 책이나 영화에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가령 박종필 감독님의 버스를 타자라는 다큐멘터리와 김원영 작가의 책(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편집인)이 있어요. 이러한 영화와 책에 관심이 있다가 배리어프리 영화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내가 한번 구현을 해보자라고 다짐을 해서 유튜브나 책을 보며 독학으로 만들었던 영화가 '피아노 프리즘'입니다. 이것이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Q3 화면 해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려주세요!

용어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화면 해설이라는 말로 굳어져 있지만 공연계에서는 같은 화면해설을 지칭하는데 음성 해설이라고 하거든요. 영화나 방송은 화면이 나오니까 화면 해설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화면 해설이라는 말이 사실 없고 오디오 디스크립션, 음성 해설로 통칭을 하거든요. 저도 혼용해서 쓰긴 하는데 한국에서는 화면 해설로 굳혀가고 있으니까 화면 해설로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간단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볼 때 눈을 감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즐길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화면 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눈을 감았는데 뭔지 모르겠고 잘 이해가 안 된다면 화면 해설이 필요한 영역인 거죠. 영화로 따지면 오디오로만 가능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화면 해설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Q4 화면 해설을 작성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귀로만 들어서 다 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가령 뉴스와 비교해서 영화는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정보 전달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영화의 메시지 그 자체의 정보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영화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인물의 감정이나 어떤 감동 포인트들을, 흔들리는 눈빛에 담긴 의미나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라는 고민의 흔적과 같은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영화를 보고 책을 보는 것인데요. 이게 단순한 번역이나 정보 전달에서 끝나는 화면해설은 너무 좀 아쉬운 해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보 전달보다는 감각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술 작품은 정보 전달과 그게 풍기는 맥락이나 감각까지 잘 전달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게 지나치면 해석의 강요가 돼버릴 수 있으니까 건조한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것과 작품의 어떤 감각을 풍성하게 전달하는 것 어떤 중간에 어떤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어렵고 하지만 가장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Q4-1 그렇다면 시각장애인 관객의 입장에서 감각 전달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가요?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화면 해설에 대해 생각할 때 시각장애인을 단일한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의 큰 실수였죠. 일단 전맹을 기준으로 화면해설을 제작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사실 시각장애인 중에 전맹의 비율이 정말 정말 별로 안 되고 그다음에 중도 시각장애인도 많고 잔존 시력이 있는 분들이 사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빛이나 색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시각장애인이라도 영화를 보는 감상이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는 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비장애인들도 영화를 보고 각기 감성이 다르듯이 그런 같은 장애를 갖고 있어도 이 화면 해설이 어떤 사람은 되게 설명 너무 과하다 이거 말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너무 생략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취향의 차이가 존재해요

그래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화면해설은 있을 수 없다'라는 점을 유념을 해서, 그러니까 해설 대본을 쓰는 사람이 중심을 제대로 갖고 가야 돼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라는게 바꿔 말하면 비장애인 입장에서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요라는 말과 좀 비슷해서 그건 좀 노력해야 돼요. 당연히 뭔가를 만들면 당사자의 검수를 받아야 되는 게 무조건 필요한 일이고 거기서 느껴지는 바도 많지만 뭐가 좋은 해설인지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많이 공부를 하고 좀 많이 부딪혀 가고 있습니다.

Q4-2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분에게 맞춰서 하시는지 궁금해요.

처음에는 제 기준으로 대본을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검수를 맡기는데 그건 화면 해설 전문 작가에게 검수를 맡길 때도 있고 시각장애인에게 봐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최근엔 두 분 다 시각장애인이신 부부에게 맡겼습니다. 두 분은 성격도 너무 다르시고 한 분은 색은 판별할 수 있지만 한 분은 거의 안 보이시는 분인데, 두 분의 검수 내용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연출자 입장에서 취할 건 취하고 이거는 조금 반영하겠다는 걸 반영하고 이거는 그래도 좀 내 생각대로 가야겠다는 거는 적당히 생략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냥 비장애인에게 검수 맡겨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시각장애인만 그걸 알 수 있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비장애인 친구한테 오디오 파일만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시각장애인과 똑같은 피드백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화면 해설에 경험이 없는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이게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고 뭐가 과한지도 모르고 그냥 신기하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면 해설로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그것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좋은지 나쁜지 내 취향에 맞는지 아닌지 그렇게 따지면 비장애인들도 화면에서 많이 듣는다면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일단은 그래도 제 기준을 좀 잡고 하는 편이에요

Q5 화면해설을 작성하실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화도 그렇고 방송도 다 마찬가지로인 것 같아요. 화면해설 작가들이 어려워하는 점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해설의 공간을 고려하지 않고 영상을 만들잖아요. 제작자들이 그 틈을 찾기가 어려워요. 틈이 굉장히 좁아요. 대사와 대사 사이에 뭔가를 넣어야 되는데 그 사이가 너무 좁다거나 그래서 정말 조금의 틈만 생기면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조그만 틈 안에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또 너무 과해서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서도 안 되거든요. 또 영화에서는 의도적으로 감독이 침묵의 영화를 놓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선 침묵의 감각을 무너뜨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요약하자면 화면해설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한 영상에 화면해설을 억지로 끼워 넣는 것 자체가 사후적인 작업일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한 한계가 분명하죠.

그래서 그 한계를 돌파해 내는 좋은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거 해결점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이제 화면해설을 고려한 작품을 만들면 어떨까, 기획 단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어려운 점은 틈이 없다는 것, 설명할 틈이 없다는 것.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Q6 영화에서 화면 해설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개선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화도 그렇고 방송도 다 마찬가지로인 것 같아요. 화면해설 작가들이 어려워하는 점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 해설의 공간을 고려하지 않고 영상을 만들잖아요. 제작자들이 그 틈을 찾기가 어려워요. 틈이 굉장히 좁아요. 대사와 대사 사이에 뭔가를 넣어야 되는데 그 사이가 너무 좁다거나 그래서 정말 조금의 틈만 생기면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조그만 틈 안에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또 너무 과해서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서도 안 되거든요. 또 영화에서는 의도적으로 감독이 침묵의 영화를 놓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선 침묵의 감각을 무너뜨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요약하자면 화면 해설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한 영상에 화면 해설을 억지로 끼워 넣는 것 자체가 사후적인 작업일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한 한계가 분명하죠.

그래서 그 한계를 돌파해 내는 좋은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거 해결점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이 제 화면 해설을 고려한 작품을 만들면 어떨까, 기획 단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어려운 점은 틈이 없다는 것, 설명할 틈이 없다는 것.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Q7 영화에서 화면 해설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개선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화니까 장르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가장 베리어프리 접근성이나 이런 걸 좀 그나마 많이 고려하고 발달한 부분이 공연계예요. 연극계는 이미 2020년을 기점으로 창작자들이 많이 그쪽에서 실험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메인 스트림은 아니지만 영화계는 좀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영화계나 미술계 쪽은 이제 좀 해볼까 하는 정도예요. 영화제가 열리면 구색 맞추기로 섹션 하나 정도는 베리어프리로 넣자 이런 식의 시도들이 있어요. 물론 베리어프리 영화제는 그전부터 계속그런 시도를 해온 그런 영화제이기도 하고 제가 베리어프리 영화를 그렇게 많이 감상한 것도 아니라서 전반적 문제라고 한다면 그만큼 데이터가 쌓여 있지는 않은데요. 한 가지 저는 고려하는 게 어쨌든 장애인을 고려해서 화면해설을 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즘에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말을 하듯이 장애에 관한 이해나 그런 감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의 외모를 해설하거나 어떤 사람의 장애를 해설할 때 우리가 비장애인의 어떤 시각으로 보는 장애를, 어떤 치료의 관점으로 어떤 생각을 한다든가 극복의 대상으로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점들이 해설에 녹여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 해설자분들은 가령 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걷는 건데 괜히 불편한 걸음으로 걷는다거나 힘겹게 걷고 있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차별적인 해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령 밥을 못 먹는다고 표현한다기보다는 식사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중립적이고 장애인의 차별적인 시선을 좀 덜 하는 방식으로 해설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런 해설이 아닌 경우가 간혹 있어서 그게 저는 들을 때 살짝 이제 좀 걸리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저도 그게 좀 어려운 지점입니다.

저도 아직 배워야 될 게 많고 그런 점을 고려한 해설이 좋은 해설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Q8 화면 해설 방송의 미래에 대해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화면 해설과 베리어프리 자막과 수어 통역까지 총칭해서 베리어프리 영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베리어프리 영화제는 수어 자막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이 태생적인 한계를 좀 극복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제가 화면 해설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 간혹 좋은 일을 하신다고 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나쁜 뜻은 아니겠지만 조금 걸려요. 전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장애인의 접근성에 관해서 제가 조금 죄책감이 있긴 하죠. 비장애인으로서는 이때까지 내가 그런 사람들을 전혀 신경 안 쓰고 행사를 열었구나라는 생각이 든 것도 있는데, 기획 단계부터 고려하면 어떤 작품이 나올까 창작자로서의 어떤 욕심이 있어요.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는 새로운 형식의 예술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음성 해설을 고려한다면, 화면 해설을 고려한다면, 어떤 새로운 게 나올 것인가? 장애인 버전이 따로 있고 비장애인 버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통합된 실타래처럼 얽힌 작품이 많이 만들어지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청사진은 그렇습니다.

Q8-1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 권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인권신장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에 대한 작가님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건, 화면 해설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일단은 사람들이 화면 해설이라는 것 자체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화면 해설이 뭐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이 체험하고 감상하고 자기 취향까지 나눌 수 있을 수준까지 조금 보편화가 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례로, 자막 같은 경우에는 예능이나 유튜브에서 자막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청각장애인이 한국 영화를 봤을 때 자막이 없어서 생기는 불편함들이 유튜브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단 말이죠. 자막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그런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자막이 있는 게 가독성이 좋고 영상의 집중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자막에 있는 영상을 어색해하지 않고 오히려 없으면 허전해서 한국 영화 개봉했을 때 컴플레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웅얼 웅얼해서 극장에서 하나도 안 들리니 자막을 넣어달라'와 같은 것들이요. 자막이 있는 게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없으면 허전한 그 정도까지 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화면 해설은 처음 들으면 좀 되게 어색하잖아요. 말이 되게 많고 좀 집중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 중간부터는 불편하다고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자연스럽게 영화를 보게 되듯 또 신경이 잘 안 쓰이잖아요. 화면 해설은 아직까지도 조금 자막에 비해서는 사람들에게 장벽이 있고 화면 해설이라는 게 있다는 걸 좀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Q9 화면 해설을 작성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만든 영화가 장애인 무용수예요. 다큐멘터리예요. 뇌성마비라고 하면은 걸음걸이가 남들과 다른 점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화면 해설을 해야 할지 가 큰 고민이었어요. 우리가 사실 본다는 게 그냥 순수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거에 관해서 판단을 내리면서 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차별적이지 않게 해설 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의성어 같은 걸 넣어 볼까 해서, 뒹뒹 뒹뒹 비틀비틀 걷는다고 할지 생각했어요. 근데 뭔가 비틀비틀 이라는 게 조금 차별적인 것 같고 뭔가 조금 조금 깨림칙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장애 감수성 충만하게 자신만의 중력을 가지고 걷는다고 하면 좀 오그라들기도 하고 좀 담백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뇌성마비를 가진 분은 까치발을 들어서 발끝으로 걷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까치발을 하고 걷는다'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30대 성인 여성의 걸음을 까치발로 걷는다라고 하기가 애매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낸 표현이 '발끝으로 흔들흔들 걷는다'거든요. 사실 영화에서는 10초도 안 되는 해설인데 단어를 찾아내려고 며칠 동안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인상 깊은 에피소드입니다.

Q10. 화면 해설 작가로서 이 일을 선택하려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무엇인가요?

화면 해설 대본 쓰기를 한번씩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화면 해설을 잘 쓰려면 단순하고 명료하게 써야 하거든요. 또 내가 본 것을 압축해서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귀로만 듣는 사람에게 이미지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글쓰기 능력이 있어야 해요. 이걸 에세이나 레포트 같은 거 쓸 때도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에 글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화면 해설을 쓰는 게 왜 너무 재미있는 일이나면 장면에 집중해서 화면을 쓰기도 하지만 어떤 한 장면을 해설하기 위해서는 이 영화 전체의 연출 구도를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영화 전체를 모르고서는 한 장면의 화면에서는 쓸 수가 없거든요. 영화 제작자가 아니더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영화 제작자는 자기 영화를 처음부터 다시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될 정도로 되게 영화를 깊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영화의 한 장면 정도를 화면 해설 대본을 써본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어떤 화면 해설 한 걸 듣고 좋다고 생각했던 표현 이런 것들이 자기의 문장력이나 표현력 되게 높여주기 때문에 글쓰기와 영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취미로서 접하기에도 되게 좀 신선한 경험일 것 같습니다.

+ 8. 제작후기

민지 <함께 보는 세상, 함께 찾는 화면>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자료집 제작은 화면 해설 영상의 의미와 역할을 알리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화면 해설 영상이라는 주제가 생소하게 느껴졌지만, 자료의 각 장을 구성하며 화면 해설이 단순히 시각 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넘어, 이용자의 입장에서 공감과 배려를 담아내는 작업이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특히 인터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화면해설 제작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화면해설은 마냥 딱딱하게 해설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긴박한 장면에서는 해설도 긴박하게, 감성적인 장면에서는 해설도 문학작품을 읽듯이 만든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이번 자료집 제작을 통해 미디어 접근성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집을 완성하기까지 도움을 주신 황지성 교수님, 오재형 감독님께 감사드리며, 화면해설 방송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데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많은 분에게 ‘화면해설’이라는 단어는 생소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까진 화면 해설이라는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자료집을 제작하면서 화면해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별생각 없이 즐기는 드라마나 영화, 다양한 콘텐츠를 시각장애인분들은 화면해설 없이는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미디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진 ‘평등’이라는 가치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모두가 동등하게 미디어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집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화면해설 방송 제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자료를 조사하며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비록 이번 프로젝트가 화면해설 방송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 자료집이 작은 출발점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화면해설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인 이번에 제작한 ‘함께 보는 세상, 함께 찾는 화면’ 자료집은 제게 새로운 통찰과 배움을 안겨준 소중한 작업이었습니다. 자료집을 준비하며 오재형 감독님과 황지성 교수님께서 아낌없는 도움을 주셨고, 그 과정에서 화면해설의 개념과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재형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영상 기획 단계부터 화면해설을 염두에 두고 제작한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작품들이 탄생할 수 있다는 관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접근법은 단순히 후반 작업으로 화면해설을 덧붙이는 방식을 넘어, 작품 전체의 구성과 메시지를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화면해설 영상을 만드면서 생기는 실질적인 어려움, 예를 들어 대사와 대사 사이의 공백이 짧아 화면해설을 넣기 어려운 점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집을 통해 화면해설이 단순히 배려의 차원을 넘어 창작의 새로운 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 배움을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제작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이 자료집 제작이 그러한 콘텐츠 제작의 출발점에 작은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는 세상,
함께 찾는 화면